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5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화요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행 '유력'...합의 불발

KUMHO TIRE
Better, All-ways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해 1조3000억원 규모

노조 "GM사태 등 고려 해외매각보다 법정관리행 더 나아"

P플랜 돌입시 채권단 주도 희망퇴직 등 포함 구조조정 예상

의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 상환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2월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 실행을 위한 노사 약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채권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28일이다. 이날까지도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 약정서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27~28일에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에 대한 운명을 결정지을 공산이 크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그동안 자구안 약정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최근 노조가 해외매각 반대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한 채 더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2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마감일인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노사는 자구안 약정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의는 사실상 불발되는 모양새다.

노조 측은 쌍용차, GM 사태를 볼 때 해외에 매각되는 것보다 법정관리가 낫고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 추진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돌입하거나 회사를 부도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P플랜에 돌입할 경우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 없이 희망퇴직, 임금삭감 등이 포함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 종사자를 비롯해 협

업체 직원 및 가족 등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마감시한까지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자구안 약정서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기한 내 자구안 약정서 체결이 어려워졌다"며 "회사는 노조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를 위한 노조의 입장 변화를 공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갑자기 중단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해외 매각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 불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경영정상화를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며 "회사와 직원, 지역경제를 더 큰 위기로 내모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사측은 타이어업계 평균 영업이익률(12.2%)을 기초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금액(2922억)을 산정하고 우선 필요 금액 1483억원(영업이익률 5.3%)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임금 동결 ▲임금체계 개선 및 조정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 등이 담긴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은 노조의 희생이 다수 포함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2016년 단체교섭'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중이다.

주춘정 기자



용기 굽는 도공 지난 25일 용기마을로 잘 알려진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 '칠량봉황용기' 전통가마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용기장(甕器匠) 정윤석의 이수자 정영균씨가 화목가마작업의 핵심인 불 때기를 하고 있다.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칠량봉황용기는 정윤석 용기장이 살아 숨쉬는 용기처럼 60여 년을 흙과 함께 유지해 온 보존 전승으로 사양화로 끊어질 뻔했던 전통용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교직원 행정업무 부담 줄이기 추진

외부공문 관리 프로그램 도입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행정업무 줄이기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교직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외부공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로 발송되는 외부 기관 공문을 일괄 확인해 홍보성 문서로 판단될 시 교직원들이 문서접수 절차 없이 해당 공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교육청은 3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4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자료 집계 시스템 활용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

교육청은 신학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도 실시한다.

나이스 교무업무 능력을 높이면 시간표 편성, 과목 개설 등 학사일정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

조인호 기자



청탁?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노 의원 비서관 법무부 채용 청탁 의혹'을 전면부인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1%라도 사실과 다른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과거에 (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의 공개채용에 응모했다는 지도 몰랐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의원은 '노 의원이 전직비서관이 로스쿨 출신이니 봐달라고 했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즉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의원은 법사위 신상발언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노 의원은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 저를 빨리 고발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 사진=뉴스1



보복운전, 도로위의 폭력행위입니다

정말 좋은 물건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소한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보복운전은 서로를 지키는 배려운전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